

TV

TV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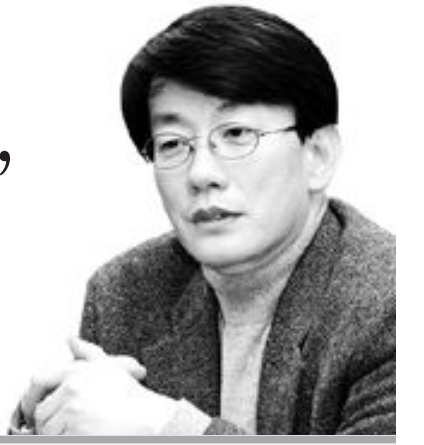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2 columns: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Lists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이젠 시청자 입장... 시원섭섭합니다”

손석희, 8년 진행한 '100분 토론' 내일 마지막 방송



“지난 8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밤을 새웠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져서 편해졌습니다.”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MBC 스튜디오에서 만난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2002년부터 8년여 동안 진행한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떠나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100분 토론”은 8년 동안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이제 떠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없지 않나. (매주 한 번씩 밤을 새웠기 때문에) 농담으로 목요일마다 미국에 출장 간다고 말하기도 했는데...”라며 아쉬운 마음을 털어냈다.

그는 “지난번 '100분 토론'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처럼 이제는 시청자 입장이 됐으니 여건이 닿는 대로 '100분 토론'을 열심히 챙겨볼 생각이다. '100분 토론'이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전날 '100분 토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손석희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에서도 “8년 동안 잘 버텼다. 버텼다는 표현을 쓴 것은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자리여서 늘 조심스러웠다는 점 때문이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며 심경을 비쳤다.

한편 19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100분 토론'을 떠나는 손 교수를 위해 제작진은 방송 시간을 30

분 늘려 '100분 토론 10년 그리고 오늘'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내보낸다. 편성도 1시간이나 앞당겨 밤 11시5분에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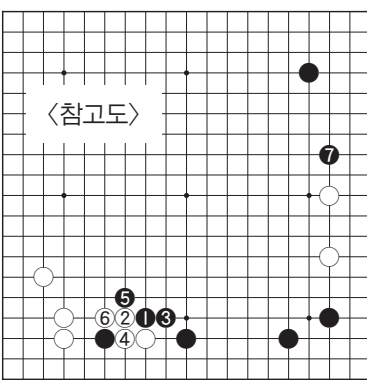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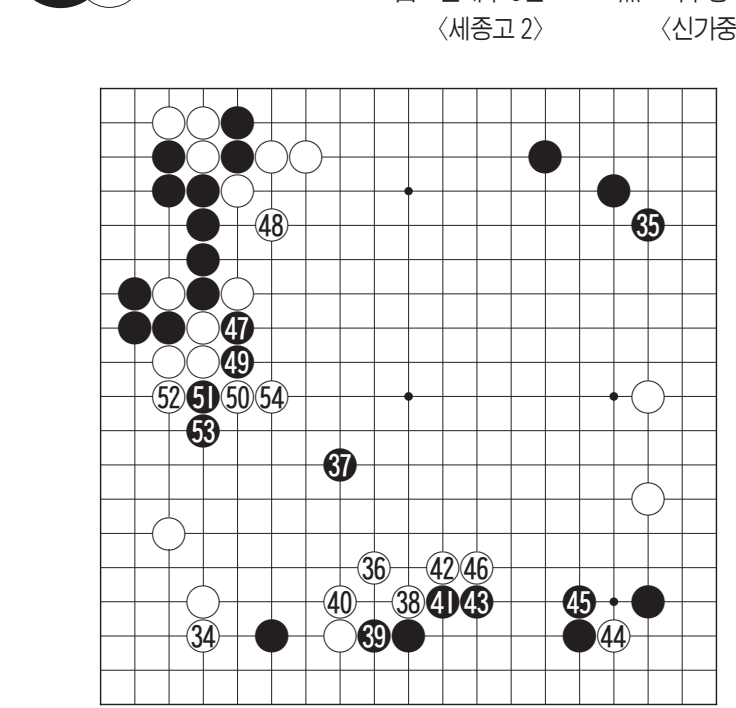
국민 화합과 소통을 위해 토론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이날 방송에는 그동안 '100분 토론'의 주요 토론자였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박정호 청와대 정무수석,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출연한다.

손 교수에 이어 '100분 토론'의 진행은 26일부턴 권재홍 보도국 선임기자가 맡는다.

연립뉴스

광주광역시 바둑협회장배

최초의 승부처 중고등부 결승전 3보 (34~54)



따라 정답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포석이다. 권재규군이 백 34로 굳힌 것은 훌륭한 수이나 우변을 두고 싶기도 하며 흑 35는 '참고도'의 흑 1로 붙여 아깝없이 5까지를 교환해 백 모양을 제한하고 7로 우변으로 다가가고 싶은 곳이다. 최우형군은 상대가 경험많은 선배인데다가 중요한 결승판이어서 인지 매우 조심스럽게 두어가고 있다.

백 36이 특이한 행마로 중앙을 키우기 위한 고심의 한수며 백 44가 적시의 응수 타진으로 권재규군이 노련미를 뽐내고 있다. 흑 47이 최우형군이 노련된 절단인데 권재규군은 54까지 강력히 반발하여 최초의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8일(음 10월 2일 丁卯)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How did your meeting go? (회의를 잘 됐어?), 2. ところ遊びに行きたいな. (어딘가 놀러 가고 싶다.), 3. 打喃 (드림하다), 4. 楊布之狗 (양포지구) 벼들 양, 베/펼 포, 갈 지, 개 구.